



## 신묘년 해맞이

### 무등산 5000명 인파

신묘년 시작을 알리는 새해가 밝았다. 지난 1일 오전 7시40분에 폭설로 뒤덮인 무등산 장불재에 오른 등산객 1000여명이 해맞이를 하고 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은 붉은 해가 솟아오르자 일제히 환호하며 음 한해 소원을 빌었다.

이날 장불재와 중미리재, 새인봉 등 무등산 주요 구간에는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새출발을 다짐하며 5000여명의 광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렸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맞이 장소인 여수 향일암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1000여명의 해맞이객들이 구름을 헤치고 떠나오는 해를 맞이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선수학습 금지 항의 ‘빗발’

〈先修學習〉

### “저소득층 학생들 학습기회 봉쇄·사교육 조장할 것”

시교육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중요… 강력 단속”

“친구들이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닐 때 형편이 안돼 온종일 집에서 책상을 지켜야 하는 학생의 심정은 생각지 않으십니까.”(아이디 자유인)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입학전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선수학습(先修學習)의 전면 금지 또는 축소를 시시(광주일보 2010년 12월29일 7면)하자 광주시 교육청과 장학국 교육감 개인 홈페이지에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등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에서 맡아온 선수학습이 금지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봉쇄되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아이디 ‘황후’는 “심화반 금지로 당

있었으면 학교와 학부모 모두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전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흥보하면서 신입생을 유치했던 자율형 공·사립고도 반발하는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교장은 “방학전 학습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시행을 약속해놓고 학부모·학생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최소한 재량학습권을 학교 측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과도한 교과 교육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며 자율형 공·사립고와 과학과 등이 운영하는 입학전 프로그램과 일선 고교 자율학습 금지, 보충수업 시간 단축 등의 지침을 시달하고 강력한 지도점검 의지를 밝혔다.

아이디 ‘후회함’은 “학교에서 겨울 방학 예비학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이 단칼에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단행했다”며 “최소한 여론수렴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학교와 학부모 모두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전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흥보하면서 신입생을 유치했던 자율형 공·사립고도 반발하는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교장은 “방학전 학습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시행을 약속해놓고 학부모·학생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최소한 재량학습권을 학교 측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과도한 교과 교육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며 자율형 공·사립고와 과학과 등이 운영하는 입학전 프로그램과 일선 고교 자율학습 금지, 보충수업 시간 단축 등의 지침을 시달하고 강력한 지도점검 의지를 밝혔다.

아이디 ‘후회함’은 “학교에서 겨울 방학 예비학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이 단칼에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단행했다”며 “최소한 여론수렴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학교와 학부모 모두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전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흥보하면서 신입생을 유치했던 자율형 공·사립고도 반발하는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교장은 “방학전 학습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시행을 약속해놓고 학부모·학생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최소한 재량학습권을 학교 측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과도한 교과 교육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며 자율형 공·사립고와 과학과 등이 운영하는 입학전 프로그램과 일선 고교 자율학습 금지, 보충수업 시간 단축 등의 지침을 시달하고 강력한 지도점검 의지를 밝혔다.

아이디 ‘후회함’은 “학교에서 겨울 방학 예비학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이 단칼에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단행했다”며 “최소한 여론수렴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학교와 학부모 모두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전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흥보하면서 신입생을 유치했던 자율형 공·사립고도 반발하는 학부모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교장은 “방학전 학습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시행을 약속해놓고 학부모·학생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최소한 재량학습권을 학교 측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2일 과도한 교과 교육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떨어뜨린다며 자율형 공·사립고와 과학과 등이 운영하는 입학전 프로그램과 일선 고교 자율학습 금지, 보충수업 시간 단축 등의 지침을 시달하고 강력한 지도점검 의지를 밝혔다.

아이디 ‘후회함’은 “학교에서 겨울 방학 예비학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이 단칼에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금지조치를 단행했다”며 “최소한 여론수렴 과정이라도

## 설연휴 열차표 호남선 6일 예매

### 1971년 김복재씨 사건 고문 허위자백 인정

#### 광주지법 판결

간첩의 누명을 쓰고 수년간 옥고를 치른 뒤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2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일 김복재(1986년 사망)씨의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9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된 뒤 구타와 고문을 겪지 못해 허위로 범행을 자백했고, 이로 인해 억울한 육살이를 하고 가족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대해

서도 “김씨에 대해 무죄판결이 이뤄진 지난해 12월 전까지는 유족이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971년 조총련 좌익활동을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80년 가석방됐으나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6년 만에 숨졌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김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린 사실을 확인했으며,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 인터넷 통해 발급 가능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예약 승인 결과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역 창구와 지정 판매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1인당 구입 가능 승차권은 6장(왕복 12장)이다.

예약 승차권 결제는 6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13일 자정까지 결제 또는 구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